

국제학술대회 개최 위상 높여

70년에 대한 간호학회 설립

대한간호학회(회장 이향련)는 지난 1955년 대학 간호교육과정이 발족된 이래 4년제 대학과정이 점차 증가되고 간호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하게 되면서 1960년대부터 학문연구에 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간호학회를 조직하자는 견해가 일기 시작하면서 설립되게 됐다.

이에 지난 1970년 대한간호협회의 정기총회에서 간호학회의 발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서 발족됐다.

이후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학술단체가 요구되며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자적인 학술단체에 등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문교부 등록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교부 등록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1970년 9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개별단체로 등록을 하게 됐다.

그러나 간호학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개별 단체로 등록한 것과 관련 간호계 일부에서는 '성급히 간호학회를 독립시키려 한다'는 비판과 '사전협의 없이 다른 단체에 등록한 것은 잘못'이라는 간호협회 측의 질책도 따랐다.

설립후 3년만에 독립

하지만 간호 이론의 발달과 간호교육의 발전 등 국·내외적인 새로운 변화의 영향으로 간호학회가 간호학의 발전과 학술연구의 중심력을 가진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창립 3년 후인 1973년 간호협회의 총회 시 회원들의 표결을 통해 독립단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에 1974년 간호협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독립 절차를 밟았다.

이후 정식적인 독립단체로서 인가를 받은 간호학회는 ▲학술활동 활성화 및 강화 ▲평생회원제운영의 내실화 ▲국제적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학술단체로서

의 면모를 새롭게 다지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이에 정진해 오고 있다.

우선 학회는 학술강화를 위해 매년 이론과 연구와의 관계, 이론의 활용 등을 주요 주제로 학술세미나, 워크숍, 학술강연회, 학술 심포지엄, 추계 학술대회, 특히 월례 학술집담회와 '과학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활성화 해오고 있다.

학회 기금 마련으로 재정난 극복

또 오랫동안 재정과 회원 수의 영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회원제를 도입, 1976년부터 학회의 기금을 마련하고 학회지의 발간 횟수의 증가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논문 게재료를 현실화했다.

이와 더불어 연회원수를 늘리고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임상분야, 보건분야에서도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으며 기존 회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바꾸어 지역이나 직장에서 선출된 회원이 대표로 참가하도록 했다.

또 기존 분과학회의 명칭을 학문의 발전에 맞추어 보건간호학 분과학회를 지역사회간호학 분과학회로, 간호사회학 분과학회를 간호교육 및 행정 분과학회로 바꾸었다가 다시 간호행정 분과학회로, 내외간호학 분과학회를 성인간호학 분과학회로, 산소아과간호학 분과학회를 모자간호학 분과학회로 바꾸게 됐다. 하지만 간호학회는 창립초기 사무실조차 마련이 되지 않아 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 직무실로 짐을 꾸려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기하기 위해 다시 대의원 총회를 회원총회로 바꿨으며 1982년에는 '회장은 4년제 대학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한 윤번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해당 대학에서 추대된 자'로 회칙을 개정하고 부회장도 차기 회장 대학에 추대된 자로 임명하여 각 대학의 참여도를 높

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심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개정해 학회 활성화를 위한 기구 조정을 실시했다.

국제 학술대회 개최

1984년에는 미국 Sigma Theta Tau와 동서양의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989년에는 Post-ICN Symposium을 개최하는 등 국제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했으며 매년 학술대회와 각종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문교부로부터 우수학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1982년에는 기초간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함에 따라 성인간호학 분과학회에서 독립을 해 기초간호학 분과학회로 창립을 했으며 1987년에는 분과학회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각 분과학회의 분과명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학회 창립이후 학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로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 등 회원들의 참석이 늘어났으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소지자도 증가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사무처 마련으로 발전기를 다져

학회업무수행에 체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회사무실이 필수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기금모금을 통해 사무실을 갖추게 됐고 사무실이 마련된 1995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임상실무자 및 비회원까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학회의 학술연구 기금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간호학 대사전 발간, 저작물 출판, 한국어 번역본 홍보 활동 등 출판계와의 협조 사업으로 학술연구 기금마련에 많은 도움을 받게됐다.

또한 그간 각 학교명의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던 당연직 회장 선출이 '당연직'이라는 안이함으로 인해 사업추진 등의 부분에 있어 자칫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학회의 발전을 위해 선거로서 선출키로 다시 회칙을 개정했으며 우수논문상을 제정해 시상하기 시작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현재 간호학회의 총 회원수는 2천여명 이며 한해 예산은 3억여원에 달한다.

〈강은정 기자〉

인 터 뷰



이 향련
대한간호학회장

“치의학회의 발족을 축하 드립니다.”
이향련 대한간호학회 학회장은 “지금껏 치의학회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치의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보다 내실을 기한 치과계 학술분야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 학회장은 얼마 전 대한간호학회 30년사를 발간하면서 학

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다면서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간호학회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간호학회 역시 학회운영을 위한 수익금 창출 등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 안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도 현재

학회에서 가장 주력해 나가야 할 일순위 사업으로 학회지의 수익금 창출화를 뽑았다.

간호학회는 또 수익금 창출의 일환으로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 사단법인 등재 시 득과 실을 정확히 따진 후 득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재정적 측면 외에도 학회의 본질적인 과제인 학술 발전이란 차원에서 SCI에 등재된 학회 만들기에도 열과 성을 기하고 있었다. 이에 간호학회에서는 일년에 학회지를 7회 발간하고 있으며 이중 1회는 영문학회지를 만들어 오고 있다.

또 그간 학회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국시관련 사업 및 학술관련 사업이 국시원이 설립되면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상당부분 이관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학회에서는 학회장이 협회 내 국시분과위원의 위원자격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로 이에 명확한 업무 분할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은정 기자〉

“치의학회 발족 축하”